

모자동실이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와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숙* · 박 영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은 첫 출산으로 어머니가 되면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여성은 영아를 돌보는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모성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성역할획득이란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ercer, 1985; Walker, Crain, Tompson, 1986). 그리고 모성역할을 파악하는 적합한 지표는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 역할은 출산과 더불어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분만 후 실제로 영아를 돌보는 활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Rubin, 1967).

임신동안 어머니의 관심은 임신 자체나 분만 준비에 집중되어 있어서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정보나 교육에 대하여 소홀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산 후에는 영아 돌보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영아 돌보기를 배우는 첫 장소는 주로 출산을 담당할 병원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산 후에 어머니와 아기가 함께 있는 모자동실이 매우 중요하다.

모자동실에서 간호사는 어머니와 영아를 한 단위로 인식하여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영아 특성에 따른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현장교육을 할 수 있다. 모자동실에서 어머니는 영아가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영아의 울음이나 행동에 익숙하게 되어 영아의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를 덜 하게되고 영아 돌보기를 수행할 수 있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또한 모자동실은 어머니와 영아의 부자연스러운 분리를 막고, 조기 접촉을 통해 모아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어머니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도 영아를 만나서 상호작용 할 수 있다(Keefe, 1987; Harvey, 1982). 이와 같이 출산 후 어머니가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영아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머니와 영아를 같은 병실에 두는 모자동실을 실시하여, 어머니가 영아 돌보기 활동을 배워서 어머니 역할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으며, 또한 조기 접촉을 통해 모아 애착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Wilkerson, 1988).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산욕초기 어머니들이 모자동실을 선호하고 있으나(최애규, 1980), 국내 대부분의 병원은 출산 후 모자동실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신생아의 감염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어머니와 아기

* 삼성서울병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를 분리시켜 어머니는 산과 병실에서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각기 간호를 받는 모자별실을 실시하고 있어서 모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영아 돌보기에 제한을 받고 있다(전은미, 1993). 그리고 전통적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분만 후 어머니는 조부모나 부모,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아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의논할 수 있으나 오늘날 핵가족화로 인하여 어머니가 부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경험으로 축적해 왔으나, 가임 여성 1인당 1.42명으로 감소(인구동태통계연보, 1999)하고 있는 요즘 추세에서 출산한 여성은 이러한 직접 경험의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초산모는 정상분만 후에 2-3일간 병원에 머무르게 되는 데, 대부분의 병원은 어머니와 영아를 분리 수용하는 모자별실이기에 때문에 초산모는 영아와 상호작용 하거나 영아의 반응을 파악할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유수유를 시행하기도 어렵고, 영아 돌보기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퇴원 후 영아를 돌보는 책임을 전적으로 어머니가 맡게 되면서 영아를 돌보는 일을 두려워하고 영아의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불안을 갖게 된다. 또한 모아 접촉과 영아 돌보기 활동의 기회가 부족하면서 어머니는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어렵고 영아 돌보기 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하고(Barnett, 1970), 산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이영화, 1988). 그 외에 첫 출산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잠재적 위기가 올 수 있으며(Smith, 1989), 영아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이 적어져서 영아의 육체적, 심리적, 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wanson, 1978).

모자동실이 모성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된 국내 연구에서 박문희(1995)는 모자동실 보다 오히려 모자별실에 있는 어머니가 영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고 황문숙(1997)의 연구에서도 모자별실에 있는 어머니가 모자동실에 있는 어머니보다 더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가 지각하는 영아에 대한 태도와 돌보기 자신감을 측정하여 모자동실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산욕기 초기에 모자동실이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와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산욕기 초기에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2) 산욕기 초기에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파악한다.
- 3)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가 모자동실과 모자별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 4)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모자동실과 모자별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3. 용어의 정의

모자동실 :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간단한 처치와 검사를 한 후 신생아는 산모 병실로 옮겨져 어머니와 함께 같은 병실에 12시간 이상 머무르며, 그 동안 어머니는 신생아를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모자별실 : 분만 후 어머니와 신생아는 분리되어 산모 병실과 신생아실에서 각자 머무르며, 어머니는 지정된 시간에만 신생아실 창문을 통하여 아기와 면회하거나 모유수유를 원할 때 수유실에서 수유하기 등의 영아 돌보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영아에 대한 태도 : 어머니의 아기 양육과 관련된 지각과 영아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의 233개 문항 중 Choi(1986)의 연구에서 영아에 대한 태도에 관한 23개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영아 돌보기 자신감 : 영아의 안녕과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 역할에 대하여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haris' Self Confidence Scale를 토대로 박미숙(1991)이 개발한 도구로 평가한 점수를 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모자동실

모자동실(Rooming-in)이란 영아가 어머니의 병실에 함께 있는 병원 환경을 말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를 곁에 두고 모유수유나 기저귀 갈기, 끌어안기 등 영아 돌보기 활동을 하여 자연스럽게 부모와 영아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제이다(Reeder et al., 1997).

모자동실은 어머니가 영아 돌보기 활동을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영아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영아에 대한 애착을 증가시키고, 모유수유율을 증가시켰다(Gruis, 1977, Curry, 1982, Gonzales, 1990). 모성역할에 관한 학습은 언제 정보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출산 직후 모자동실을 통해 영아 돌보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계화(1994)의 연구에 의하면 산육초기 어머니에게 실시하는 영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은 돌보기 활동 자신감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만 전에 양육 준비도가 분만 후 1-3일경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출산 후 산육초기에 어머니에게 영아 돌보기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dams(1963)도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 임신 중에는 영아 돌보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임신동안 어머니의 관심은 임신 자체와 분만과 관련된 통증이나 두려움 등의 분만 준비에 있으므로 영아양육에 대한 교육이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어머니가 모자동실에 있거나 영아에게 젖을 먹일 때 영아양육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산육기 초기에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Gruis(1977)는 보고하였다. 모자별실의 병원환경에서는 어머니가 육아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아기의 반응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퇴원 후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책임이 병원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되어서, 아기 돌보기를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며 아기의 정상적인 행동에도 불안을 갖는다(Bobak, Lowdermilk & Jensen, 1995).

Prodromidis(1995)의 연구에서 모자동실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터치(touch)를 관찰한 결과 모자동실의 어머니가 영아를 바라보고, 말하고, 얼굴, 머리, 손가락 손바닥, 다리 등을 만지는 시간과 영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시간이 더 길었고, 아기와

함께 노는 시간도 유의하게 더 길었다. Curry(1982)의 연구에서도 출산 후 어머니가 영아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모아.접촉을 가능케 하는 모자동실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을 발전시켜 어머니의 걱정을 감소시키고 모유수유와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모자동실은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 충동을 자연스럽게 발생시키고 모유수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Keefe(1987)는 제시하였다. Salariya, Easton & Caster(1978)도 모자동실이 모유수유와 관련된 지식을 얻고 영아의 요구에 따른 모유수유를 가능하게 하고 모유수유 성공률이 높다고 하였다. 모아 조기접촉과 모자동실로 모유수유 시도율과 지속율을 조사한 Lindenberg(1990)의 연구에서 조기 모아 접촉만으로 모유수유를 오래 지속시키지는 못하였고 모자동실이 모유수유를 오래 지속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황문숙(1997)의 연구에서도 모자동실의 어머니가 더 많이 초유를 수유하였고 입원 중 모유수유와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원 후 출산 4주 제 모유수유율이 모자별실에 입원한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유 수유를 계획하고 빨리 젖을 먹이려는 노력이 모아간의 접촉과 유대를 촉진하여 모유영양을 한 어머니는 영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갖는 것으로 박영숙과 변희재(1984)는 보고하였다.

모자동실은 이런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감염에 대한 우려와 어머니가 영아의 울음이나 돌보기 활동으로 제대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모자동실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Killien 와 Lentz(1985)의 수면 양상을 관찰한 연구에서 산모의 12-69%가 밤에 깬다고 하였고, 수면 부족은 산후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Errante(1985)는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면부족의 원인은 모자동실보다는 회음부나 유방의 통증과 같은 신체적 불편감과, 사생활보호의 결여 등의 환경적 요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Turton(1980)는 제시하였다. Keefe(1987)는 21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모자동실에서 어머니의 수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 모자동실에서 평균 수면시간은 5.55시간, 모자별실에서 평균 수면시간은 5.35시간으로 수면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고 수면의 질에 있어서 7점 등간척도로 측정된 결과 모자동실에서 5.23, 모자별실에서 4.78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Waldenstrom & Swanson(1991)의 연구에서 낮 동안의 모자동실과

24시간 모자동실간에 수면시간과 피로를 조사한 결과 24시간 모자동실을 하는 것도 산모의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두 군간의 수면시간과 피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모자동실은 의료인에 의한 영아들의 교차감염의 기회를 줄이고 격리의 기능을 함으로써, 모자동실을 실시한 후 설사, 호흡기 문제, 및 피부문제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Gonzales(1990)의 연구가 있다. 또한 모자동실을 실시한 영아는 생후 2주 내에 발생한 Rotavirus군에 의한 설사가 가족이나 친척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2~3%) 중앙 집중식 신생아실에서는 29%가 발생하였다는 Bishop, Carmen, Veenstra, & Barnes (1979)의 보고도 있었다.

2. 영아에 대한 태도

모아 상호작용에서 모아 양측의 여러 특징들이 서로 관련성을 갖고 그 질을 결정하는데 그 중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Klaus & Kennell, 1982).

산욕 초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어머니다운 감정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고(Hall, 1984), 모아 접촉과 애착발달에 영향을 주며(왕임순, 1986), 영아에 대한 민감성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Brazelton, 1974). 모아의 조기분리는 어머니로서의 기술, 태도 및 모아 관계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Barnett, 1970), 모아 간의 접촉과 상호관계가 산욕기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이다(Avant, 1979).

김태임(199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었고, 조수현(1990)의 연구에서도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긍정적이면 애착도 더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아 접촉시간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출산 직후 모자별실체에서 모자동실 병원체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아 조기접촉이 어머니 역할획득과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인희(1986)의 연구에서 조기 접촉을 한 산모의 애착행위는 조기접촉을 하지 않은 산모의 애착행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모자별실인 경우 영아와 신체적으로 접촉이 적은 어머니는 영아와 심리적인 소원감을 경험하게 되어 기대와 실제 아기간에 불일치가 있을 때 불안, 죄의식, 충격, 거부현상 등의 감정을 가지며, 때때로 이

런 감정은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였다(Affonso & Stichler, 1976).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영아는 짜증을 내지 않고 기분 좋은 음성을 나타냈고(Sarale, Leila, & Arthur, 1978), 영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고 느꼈던 어머니가 영아에게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Brazelton, 1974). Zunich(1971)는 영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안면 대 안면(face to face) 상호작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반응한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Tulkin와 Cohler(197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정서적 수용정도와 영아 욕구를 인지하는 정도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영아를 수용할수록 일관된 행동을 나타내며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오래 지속한다고 하였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영아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고(Kennedy, 1973),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Choi, 1984).

3. 영아 돌보기 자신감

산욕기 모성역할의 대부분은 아기의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므로 모성역할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Shereshesky & Yarrow, 1974).

영아는 출생 즉시부터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보살핌은 부모의 책임으로 하루 24시간 그리고 장기간 지속됨으로 첫 아기의 출생은 부모에게 환경적,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정신적인 부담을 준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역할과는 달리 피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 부모는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이혜란, 1983; 정문자, 1985). Gruis(1977)는 산욕기 어머니의 모성역할이란 의존적인 영아의 요구를 알고 영아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아기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가족과의 조화를 위해 삶의 형태와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Leifer(1977)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산욕기 어머니는 중간 정도 내지 심한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중 2/3는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다. Tulmen와 Fawcett(1988)도 산욕기 어머니 70명의 96%가 남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도

음의 내용은 주로 영아 돌보기(63%)라고 보고하였다.

14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혜란(1984)의 연구에서 81.4%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Russel(1974)의 연구에서도 296명의 어머니 중에서 약간 어려움 57.5%, 중증도의 어려움 39.1%, 약간 심한 어려움 3.1%로 99.7%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어려움이 없는 어머니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Mckim(1986)의 18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영아양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자형(1996)은 초산모들이 영아 돌보기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것은 목욕시키기, 배꼽 소독하기, 울음 파악하기, 아기 상태 파악하기 등이었고 비교적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저귀 갈기, 옷 입히기, 안아주기, 예방접종시키기 등이라고 하였다.

영아 돌보기 활동과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보면 김상남(1996)은 임신부의 산육기 모성역할 자신감과 간호요구 조사에서 기저귀 갈기, 옷 갈아 입히기, 질식 예방법, 트림시키는 법, 배꼽관리 등 신생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을 때 모성역할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이자형(1998)은 산육초기 어머니들 중 영아 돌보기와 관련된 양육행동을 잘 하는 어머니는 역할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은숙(198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상관관계는 정상관 관계이었다. 즉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 감정, 수유, 목욕, 신체 청결 유지 관리, 영아 상태 파악 등 일상적인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높은 산모일수록 영아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영은(1992)의 연구에서도 산육초기 아기와의 접촉, 양육행동의 경험 등은 어머니 역할 획득을 통한 어머니 역할적응을 돕는다고 하였다.

모성 역할에 있어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현영과 문영임(1998)의 연구에서 출산 4-6주에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은 서로 정상관 관계였다고 하고 출산 4-6주에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 부정적인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영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영화(1988)의 연구에서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산후 우울이 높은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미숙(1991)의 연구에서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은

입원 중 모자동실을 통해 간호사가 아기 돌보는 것을 보면서 돌보기를 배우고 실제로 돌보기 활동을 해 보았으므로 아기의 행동 생리 단순한 돌보기 활동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퇴원 후 간호사의 감독이 없더라도 더욱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영아 돌보기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자동실을 한 경우 자신감이 높았다. 그러나 황문숙(1997)은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이 모자별실인 경우 약간 높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자별실의 경우 영아 돌보기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해 자기 자신이 유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높게 지각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와 돌보기 자신감을 알아보기 위한 비교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있는 12시간이상 모자동실을 운영하는 3개 종합병원과 모자별실을 운영하는 5개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이다. 임신 및 분만과정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고 아기의 체중이 2500g이상이며 태태기간 38-42주에 출산한 산모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128명으로 모자동실군이 67명, 모자별실군은 61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영아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ohler's Maternal Attitudes Scale에서 Choi(1984)가 영아에 대한 태도에 관한 23개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7점 등간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3점에서 최고 161점까지이며, 점수가 많을수록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한경자와 박영숙(1985)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2이었다.

2) 영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도구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Pharis' Self Confidence Scale 13개 문항을 토대로 박미숙(1991)이 개발한 3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측정한 도구는 안위 및 안전(Comfort & Safety) 5 문항, 영아의 행동(Behavior) 6문항, 수유(Feeding) 10 문항, 위생관리(Hygiene) 4문항,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Bathing & Diapering) 5문항, 건강과 질병(Health & Illness)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등간척도로서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점수의 범위는 최저 38점에서 최고 165점까지이며, 점수가 많을수록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미숙(1991)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8개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들 대상으로 퇴원 1~2주 후 외래 방문 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추후 관리가 퇴원 2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퇴원 전 발송용 우표와 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산모에게 배부하여 퇴원 1주 후에 응답하여 연구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회수율은 53%이었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을 구하였고,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차이는 T-test를 하였고, 대상자의 특성별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26-30세가 53.1%(68명)로 가장 많았으며, 31-35세는 39.1%(50명)를 차지하였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인 68.8%(87명)로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68%(87명)로 나타났다.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에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을 살펴본 결과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표 1. 참조).

〈표 1〉 초산모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

		모자동실		모자별실		χ^2	P	
		수	%	수	%			
연령	2	1	0.8	1	1.5	1.553	0.670	
	일	68	53.1	34	50.7			
반	3	50	39.1	28	41.8	2.863	0.091	
	적	3	9	7.0	6.0			
특	교육정도	고	41	32.0	17	25.4	2.863	0.091
	성	대	87	68.0	50	74.6		
직업	전	87	68.0	45	67.2	6.341	0.175	
	취	41	32.0	22	32.8			
산전진찰	규	122	95.3	62	92.5	2.424	0.120	
	산	불	6	4.7	5			7.5
과	분만	질	73	57.0	41	61.2	0.994	0.319
	적	형태	재	55	43.0	26		
특	아기성별	여	63	49.2	37	55.2	2.028	0.154
	성	남	65	50.8	30	44.8		
산전양육	무	31	24.2	18	26.9	0.537	0.464	
	준비	유	97	75.8	49			73.1
계		128	100	67	100	61	100	

2) 산과적 특성

산과적 특성으로 산전진찰을 규칙적으로 받은 대상자는 95.3%(122명)로 매우 높았다. 분만 형태는 질식분만이 57%(73명), 제왕절개는 43%(55명)를 차지하였다. 아기의 성별은 여아가 49.2%(63명), 남아가 50.8%(65명)이었고, 산전 양육준비는 75.8%(97명)가 '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에 산과적 특성으로 산전진찰, 분만형태, 아기성별, 산전양육준비를 살펴본 결과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표 1. 참조).

2.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

1) 영아에 대한 태도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의 점수 범위는 82점에서 138점이며 평균점수는 100.32이었다.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에 영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면 모자동실군의 평균은 100.94이고, 모자별실군은 97.43으로 모자동실군에서 영아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0.1% 수준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참조).

<표 2> 영아에 대한 태도

	수	평균	표준편차	t	P
모자동실	67	102.94	10.27	3.31	0.001*
모자별실	61	97.43	8.37		
계	128	100.31	9.77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에 대한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본 결과 연령, 직업, 교육정도, 결혼생활 만족, 평소 남편의 도움정도, 아기성별에 따른 영아에 대한 태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그러나 입원 중 수유형태에 따라 모유수유를 한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 점수는 103.24이고 인공수유를 한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 점수는 96.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6), 퇴원 후 수유형태에 따라 모유수유를 한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 점수는 102.70이고 인공수유를 한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는 99.19이며 혼합수유를 한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 점수는 9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7).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에 대한 태도

(N=128)

		수	%	평균	표준편차	χ^2	P
연령	21-25	1	0.8	113		1.264	0.290
	26-30	68	53.1	99.22	9.08		
	31-35	50	39.1	101.76	10.70		
	36-40	9	7.0	99.11	8.89		
교육정도	고졸	41	32	98.98	9.81	1.130	0.290
	대졸이상	87	68	100.94	9.75		
직업	전업주부	84	65.6	99.93	10.19	0.674	0.611
	취업주부	44	34.4	101.05	8.98		
결혼생활만족	매우만족	59	46.1	100.34	9.13	1.145	0.322
	만족한편	67	52.3	100.60	10.35		
	불만족	2	1.6	90.00	1.41		
평소남편 도움정도	아주잘도와줌	74	57.8	101.34	9.25	2.581	0.808
	조금도와줌	45	35.2	99.96	10.57		
	도와주지않음	9	7.0	93.67	7.76		
아기성별	여	63	49.2	98.62	8.97	3.808	0.053
	남	65	50.8	101.95	10.29		
입원중 수유	모유수유	43	33.6	103.23	10.14	5.362	0.006*
	인공수유	39	30.5	96.46	6.76		
	혼합수유	46	35.9	100.85	10.66		
퇴원후 수유	모유수유	64	50.0	102.70	10.09	4.212	0.017*
	인공수유	16	12.5	99.19	7.14		
	혼합수유	48	37.5	97.50	9.43		

3.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

1) 영아 돌보기 자신감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 정도를 파악한 결과 평균점수는 119.55이었고 범위는 58점에서 173점이었다.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6개 영역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보면 안위 및 안전이 3.28로 가장 높았고, 목욕은 3.24, 위생은 3.17, 수유는 3.15, 영아 행동과약은 3.14, 건강과 질병은 2.99 순이었다.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서 모자동실군의 평균은 123.10으로 모자별실군의 평균 115.86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0). 따라서 모자동실에 있는 초산모가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있었다.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하위영역으로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돌보기 활동에서 모자동실군의 평균은 25.04이고, 모자별실군의 평균은 22.6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8). 영아의 행동을 파악하는 영역에서 모자동실군의 평균은 19.63이고, 모자별실군의 평균은 18.00(P=.01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목욕관련, 수유관련, 안위 및 안전관련, 위생관련 돌보기 활동에서는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참조).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돌보기 자신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살펴보면 아기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하는 경우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121.10으로 불만족한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 평소 남편 도움정도에서 잘 도와준다고 응답한 경우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119.74로 잘 도와주지 않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입원 중 수유형태, 퇴원 후 수유형태에 따른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5. 참조).

4.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간의 모유수유 실천

입원 중 수유 형태에 있어서 모자동실군은 모유수유 56.7%(38명), 혼합수유 29.9%(20명), 인공수유 13.4%(9명)로 나타났고 모자별실군에서는 인공수유 49.2%(39명), 혼합수유 42.6%(26명), 모유수유 8.2%(5명)로 수유형태와 모자동실 유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모자동실군에서는 모유수유가 56.7%로 가장 높은 반면에 모자별실은 인공수유가 49.2%로 가장 높았다.

퇴원 1주 후 수유 형태에 있어서 모자동실군은 모유수유 64.2%(43명), 혼합수유 26.9%(18명), 인공수유 9.0%(6명)로 모유수유율이 증가하였고 인공수유율이 감소하였다. 모자별실군에서는 혼합수유 49.2%(30명), 모유수유 34.4%(21명), 인공수유 16.4%(10명)로 모유수유율이 입원 중 수유형태와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인공수유율은 감소하였다. 퇴원 1주후 수유형태와 모자동실 유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4).

<표 4> 영아 돌보기 자신감

영역 (문항수)	계(N=128)		모자동실군(N=67)		모자별실군(N=61)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목욕(5)	16.20	3.07	16.46	3.14	15.92	3.00	1.005	0.317
	3.24	0.61	3.29	0.63	3.18	0.59		
건강과 질병(8)	23.91	4.96	25.04	4.67	22.67	5.00	2.392	0.018*
	2.99	0.61	3.11	0.57	2.85	0.62		
수유(10)	31.53	5.68	32.30	5.97	30.69	5.26	1.612	0.109
	3.15	0.57	3.23	0.60	3.07	0.53		
안위안전(5)	16.39	2.83	16.82	2.91	15.92	2.69	1.820	0.710
	3.28	0.57	3.36	0.58	3.18	0.54		
위생(4)	12.66	2.89	12.85	3.15	12.46	2.57	0.765	0.445
	3.17	0.72	3.21	0.79	3.11	0.64		
영아행동(6)	18.85	3.95	19.63	4.06	18.00	3.68	2.368	0.019*
	3.14	0.54	3.27	0.68	3.00	0.61		
영아 돌보기 자신감	119.55	20.59	123.10	20.85	115.86	19.73	2.071	0.040*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돌보기 자신감

(N=128)

		수	%	평균	편차	F	P
연령	21-25	1	0.8	126		0.290	0.833
	26-30	68	53.1	118.91	21.44		
	31-35	50	39.1	119.26	21.01		
	36-40	9	7.0	125.33	11.45		
교육정도	고졸	41	32	119.66	21.09	0.002	0.969
	대졸이상	87	68	119.51	20.47		
직업	전업주부	84	65.6	121.14	20.64	1.490	0.209
	취업주부	44	34.4	116.52	20.39		
결혼생활 만족도	매우만족	59	46.1	121.10	22.11	0.599	0.573
	만족한편	67	52.3	118.54	19.33		
	불만족	2	1.6	108.00	18.38		
평소납편 도움	잘도와춤	74	57.8	119.74	20.96	0.508	0.603
	조금도와춤	45	35.2	120.56	19.84		
	도와주지않음	9	7.0	113.00	22.42		
아기성별	여	63	49.2	118.10	21.00	0.622	0.432
	남	65	50.8	120.97	20.25		
입원중 수유	모유수유	43	33.6	123.74	15.74	2.833	0.063
	인공수유	39	30.5	113.36	22.56		
	혼합수유	46	35.9	120.84	21.99		
퇴원후 수유	모유수유	64	50.0	122.03	20.85	1.738	0.180
	인공수유	16	12.5	122.69	14.30		
	혼합수유	48	37.5	115.21	21.59		

〈표 6〉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간의 모유수유 실천

		전체		모자동실		모자별실		χ^2	P
		수	%	수	%	수	%		
입원중 수유	모유수유	43	33.6	38	56.7	5	8.2	37.216	0.000*
	인공수유	39	30.5	9	13.4	30	49.2		
	혼합수유	46	35.9	20	29.9	26	42.6		
퇴원 1주후 수유	모유수유	64	50.0	43	64.2	21	34.4	11.306	0.004*
	인공수유	16	12.5	6	9.0	10	16.4		
	혼합수유	48	37.5	18	26.9	30	49.2		
계		128	100.0	67	100.0	61	100.0		

V. 논 의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본 연구에서 모자동실군은 102.94, 모자별실군이 97.43으로 모자동실군에서 영아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0.1% 수준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라마즈교육에 따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에 관한 환경자와 박영숙(1985)의 연구에서 교육을 받은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는 110.56, 교육을 받지 않은 초산모는 102.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모자동실군의 영아에 대한 태도가 라마즈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와 비슷하였고, 교육을 받은 어

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보다는 낮았다. 또한 모자별실군의 영아에 대한 태도는 라마즈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는 100.31이고 연령, 직업, 교육정도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아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초산모 162명을 대상으로 영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이용선(1989)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 18문항으로 56.5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의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은 모자동실군에서 123.10으로 모자별실군의 115.86과 비교하여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P=.040$). 모자동실 유무에 따라 초산모 104명을 대상으로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측정한 박미숙(1991)의 연구 결과에서 퇴원 1주 후 모자동실을 한 어머니가 모자별실을 한 어머니의 자신감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P=.001$). 그러나 영아 돌보기 활동 중 6개 하위 영역에서 박미숙(1991)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모자동실에서 어머니가 영아를 목욕시키는 돌보기 활동이나 배꼽관리와 같은 위생과 관련된 돌보기 활동을 직접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욕, 건강과 질병, 수유, 안위 및 안전, 위생, 영아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모자동실이 모자별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과 질병($P=.018$), 영아행동($P=.019$) 두 영역에서만 모자동실이 모자별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박미숙(1991)의 연구에서 모자동실을 실시하는 국내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동실을 실시하는 미군 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와 모자별실을 하는 국내 병원에서 분만한 어머니와 비교한 결과로 인하여 대상자간의 문화적 환경적 차이 때문에 6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모자동실에서 어머니에게 영아를 목욕시키는 방법이나 배꼽을 소독하는 위생관련 돌보기 활동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퇴원 후 어머니는 이러한 돌보기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영아를 목욕시키거나 배꼽관리와 같은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모자동실을 하는 동안 어머니에게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114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자동실 유무에 따른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측정한 황문숙(1997)의 연구에서 모자동실을 실시한 어머니보다 모자별실을 한 어머니가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높았고, 6개 영역 즉 목욕, 건강과 질병, 수유, 안위 및 안전, 위생, 영아행동 파악 등 모든 항목에서 모자동실보다 모자별실인 경우 자신감이 더 높게 나온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퇴원 1주 후 초산모들이 모두 집에서 영아 돌보기 활동을 수행해 본 후 측정하였는데, 황문숙(1997)의 연구에서는 퇴원 당일에 측정하여 모자별실에 있었던 어머니는 영아 돌보기를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별실을 한 어머니는 영아를 직접 돌보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영아 돌보기 활동에 자신이 있다고 지각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영아 돌보기 활동을 경험하지 않고 지각한 자신감과 실제 영아 돌보기 활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자별실 어머니가 자신이 유능할 것이라고 상상한 자신감은 퇴원 후 영아를 돌보는 활동에 대해 더욱 어렵게 느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초산모는 영아를 돌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직접 돌보기 활동을 수행하여 영아 돌보기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 아닌 현실적인 자신감을 갖도록 간호사는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퇴원 후에 실제적 영아 돌보기 활동을 초산모가 잘 수행하도록 돕는 방안으로 모자동실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자동실군인 경우 모유수유율은 56.7%이고 모자별실군은 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00$) 퇴원 1주 후 모유수유율에 있어서도 모자동실군은 64.2%이고 모자별실군은 3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자동실군의 모유수유율이 더 높았다($P=.004$). 이러한 결과는 권숙희 등(1993)의 연구에서 모자동실군은 44.4%, 모자별실군은 18.5%가 모유수유를 실시했다는 결과와 비슷하고 황문숙(1997)의 연구에서 모자동실군은 43.9% 모자별실군은 14.3%가 모유수유를 실시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모자동실군에서 모유수유율이 높은 이유는 영아가 어머니 곁에 있어서 모유수유를 시도하기가 쉽고, 또 영아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배고파서 우는 영아의 울음을 파악함으로써 영아의 요구에 따라 즉시 모유수유 할 수 있고, 일괄적이 아닌 자신의 영아에게 알맞은 수유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모자별실군에서 입원 중 모유수유율에 비하여 퇴원 1주 후에 모유수유율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모아가 분리된 모자별실이라는 병원환경이 모유수유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모유수유 저해요인 중에서 병원제도상 요인으로 분만 후 모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한 이미자(199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양상이다.

모유수유율이 높았던 모자동실군이 퇴원 후에 모유수유율이 높은 것은 병원에서 시도된 수유방법이 퇴원 후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분만 후 초기에 병원에서 실시한 수유방법이 모유수유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송지호 등(199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수유방법의 결정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영향을 받고, 모아분리는 모유수유를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아가 함께 있도록 하는 모자동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Dharamraj 등(1981)은 1435명을 대상으로

모자동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모자동실을 일부 실시한 병원에서는 모자동실을 원하는 어머니가 40%에 불과하였지만, 대부분 모자동실을 실시한 병원에서는 모자동실을 원하는 어머니가 73%로 높았다. 또한 모자동실을 더 선호한 경우는 라마즈 교육을 받은 임신부, 초산모, 질식분만 한 산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 모자동실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모자동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자동실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모와 의료인의 모자동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모자동실제도에 대한 간호사 120명, 의사 86명, 산모 111명간의 인식도 비교에서 간호사와 산모는 모자동실제도의 장, 단점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의사는 모자동실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안문운, 1996). 따라서 모자동실제가 성공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강한 의지, 지속적인 행정지원, 훈련된 인력 준비가 필요하다(Gonzales, 1990).

모자동실 중에서 모아를 한 단위로 인식하여 간호하는 경우와 산모와 영아를 분리하여 간호하는 경우에서 신생아 담당간호사와 산모 담당간호사가 별도로 간호하는 모자동실제보다는 한 간호사가 영아와 어머니를 동시에 간호하는 모자동실제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어머니의 교육적 요구를 많이 수용할 수 있었으며 간호사-산모간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였다(Watter & Kristiansen, 1995). 현재 우리 나라의 모자동실제도는 모아를 한 단위로 인식하여 한 간호사가 담당하지 않고 신생아는 신생아실 간호사가 담당하고 산모는 산과병동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모자동실에서 신생아 담당 간호사와 산모간호사가 따로 있을 경우 신생아 간호사는 아기를 돌보는 일만 하고 산과 간호사는 산모관리에만 치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모자동실이 되기 위해서 한 간호사가 어머니와 영아의 요구를 함께 가장 잘 충족시키는 제도적 변화와 신념이 절실히 필요하다(Martell, 1995).

VI. 결론 및 제언

연구의 목적은 모자동실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는 3개 종합

병원과 모자별실을 운영하는 5개의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자동실군 67명, 모자별실군 61명 총 128명이였다. 자료수집은 Choi(1984)가 번안한 Cohler's Maternal Attitudes Scale 23개 문항과 Pharis' Self Confidence Scale을 토대로 박미숙(1991)이 개발한 38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26-30세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68.8%이었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68%이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에서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으로 산전진찰을 규칙적으로 받은 대상자는 95.3%로 매우 높았다. 분만 형태는 질식분만이 57%이였고, 산전 양육준비를 한 대상자가 75.8%이였다. 산과적 특성으로 산전진찰, 분만형태, 아기성별, 산전 양육준비에서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3.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의 평균점수는 100.32이였고, 평균점수의 범위는 82-138점이였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평균점수는 모자동실군에서 100.94로 모자별실군 97.43보다 더 높았고 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직업, 교육정도, 결혼생활 만족, 아기성별에 따른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유형태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간에 5% 유의수준으로 관련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였다.
5.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평균점수는 119.55이였고 범위는 58점-173점이였다. 6개 하위영역으로는 안위 및 안전과 관련된 자신감이 가장 높았으며, 목욕관련, 위생관련, 수유관련, 영아행동관련 돌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자신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
6. 영아 돌보기 자신감은 모자동실군에서 123.10으로 모자별실군(115.86)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40$). 건강과 질병 관련 돌보기 활동에서 모자동실군이(25.04) 모자별실군(22.67)보다 자신감이 5% 유의수준으로 더 높았다. 영아 행동과 관련된 돌보기에서 모자동실군(19.63)은

모자별실군(18.00)보다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9$). 그러나 목욕, 수유, 안위 및 안전, 위생과 관련된 돌보기 활동에서는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직업, 교육정도, 결혼생활 만족, 평소 남편 도움정도, 아기성별, 입원 중 수유형태, 퇴원 후 수유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는 차이가 없었다.
8. 수유형태와 모자동실 유무간에 연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자동실에서 모유수유율이 모자별실과 비교하여 입원중이나($P=.000$) 퇴원 1주 후에($P=.004$) 모두 높았다.

결론적으로 모자동실이 모자별실에 비하여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도 더 높았다. 그리고 모자동실에서 모유수유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모자동실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모자동실제 운영 시 신생아실 간호사와 산과 간호사가 별개로 접근하는 간호 전달 방법과 한 간호사가 어머니와 영아를 함께 간호하는 간호 전달 방법을 비교 연구해 봄으로써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돌보기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모자동실제 운영 시 24시간 모자동실과 낮 동안 12시간만 운영하는 모자동실 간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돌보기 자신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3. 모자동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영아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구현영, 문영임 (1998).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 대한간호학회지, 28(4), 920-929.

권숙희 외 (1993). 모유수유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김상남 (1996). 임신부의 산욕기 모성역할 자신감과 간

호요구.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임 (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 수유 상황에서의 모아 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문희 (1995).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25(3), 431-439.

박미숙 (1991).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 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숙, 변희재 (1984). 신생아에 대한 산모와 감지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1), 29-41.

송지호 외 (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3-165.

안문윤 (1996). 모자동실제도에 대한 간호사, 의사, 산모간의 인식도 비교 연구.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미자 (1995).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실 간호사간의 인식 정도 비교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108-119.

이영은 (1992). 산욕 초기 초산모의 간호목표달성법할 의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화 (1988). 산욕 초기 산모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산후 우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선 (1989). 신생아기 초산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아 감지와 어머니 역할 전환의 만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숙 (1987).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자형 (1996). 산욕초기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행동. 아동간호학회지, 2(1), 5-12.

이자형 (1998). 초산모를 위한 육아 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3), 322-331.

인구통계연보 (1999). 통계청. www.nso.go.kr.

이혜란 (1984). 부모 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미 (1993). 산욕부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사례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계화 (1994). 신생아 돌보기 교육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비교.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1985).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연구. 연세논총, 355-370.
- 정은순, 한명은 (1999).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79-88.
- 조수현 (1990).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애착행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애규 (1980). 산모의 산욕기 섭생에 관한 지식 및 실태와 모아 함께 간호에 관한 요구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희 (1986). 모아 조기 접촉이 어머니 역할획득과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 한경자, 박영숙 (1985). 산전 라마즈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15(2).
- 황문숙 (1997). 모자동실이 모성역할과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석사학위논문.
- Adams, M. (1963). Early concerns of primigravida mothers regarding infant care activities. Nursing Research, 12(2). 72-77.
- Affanso, D. D., & Stichler, J. F. (1980) Cesarean birth-woman's reactio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80(2), 468-470.
- Avant, K. (1979). Nursing Diagnosis:Maternal Attachment. A.N.S. 2(1), 45-55.
- Barnett, C. R., Leiderman, P. H., Grobstein, R. and Klaus, M. (1970). Neonatal separation: The maternal side of interactional deprivation. Pediatrics. 45(2). 197-204.
- Bishop, R. F., Carmeron, D. J. S., Veenstra, A. A., & Barnes, G. L. (1979). Diarrhea and rotavirus infection associated with differing regimens of postnatal care of newborn babies.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9(4). 525-529.
- Brazelton, T. B. (1974).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 Philadelphia : Lippincott.
- Brown, B. (1982). Maternity patient teaching : A nursing priority. JOGN. 1/2, 11-14.
- Choi, Elizabeth. S. C. (1984). Unique aspects of Korean mother-infant interaction across time, presented at Sigma Theta Tau Conference in Seoul, Korea.
- Curry, M. A. (1982). The effect of early skin to skin contact. Nursing Research, 31(2), 73-78.
- Dharamraj, C. et al. (1981). Observation on maternal preference for rooming in facilities. Pediatrics, 67(5), 638-740.
- Errante, J. (1985). Sleep deprivation or postpartum blues. Topics in Clinical Nursing. 9-18.
- Gonzales, R. B. (1990). A Large scale rooming in program in a developing country. Int. J. Gynecol. Obstet, 31(1), 31-34.
- Gruis, M. (1977). Beyond maternity : Postpartum concerns of mothers. M.C.N. 5(6), 182-188.
- Hall, L. A. (1984). Effect of Teaching on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newborn. Nursing Research, 29(5).
- Keefe, M. R. (1987). The impact of infant rooming in on maternal sleep at night. JOGN. 16(2), 122-126.
- Kennedy, J. C. (1973). The high-risk maternal-infant acquaintance proces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7, 549-566.
- Killien, M. D., & Lentz, M. J. (1985). Sleep patterns and adequacy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Communicating Nursing Research. 18-56.
- Klaus & Kennell (1982). Klaus, M. H. & Kennell, J. H. (1979). Early mother-infant contact : Effects on the mother and the infant. Bull Menninger Clin, 43, 69.
- Leifer, M. (1977). Psychological changes accompanying pregnancy and motherhood.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95, 55-96.
- Lindenberg, C. S., Artola, R. C. and Jimenez

- (1990). The effect of early postpartum mother-infant contact and breast feeding promotion on the incidence and continuation of breast feeding. Int. J. Nurs. Stud., 27(3), 179-186.
- Martell, L. K., & Mitchell, S. K. (1995). Rubin's 'puerperal change' reconsidered. JOGNN, 24(3), 145-149.
- Mckim, M. K. (1986). Transition to what? New parents' problems in the first year. Family relations, 36, 22-25.
- Mercer, R. T. (1985). First-Time Motherhood : Experiences from Teen to Forties. New York : Springer.
- Prodromidis, M., Field, T., Arendt, R., Singer, L., Yando, R and Bendell, D. (1995). Mothers Touching Newborns : A Comparison of Rooming-in versus Minimal Contact. Birth, 22(4), 196-200.
- Rubin, R. (1967).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Part I: Processes. Nursing Research.
- Russel, C. 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5), 294-301.
- Salariya, Easton & Caster (1978). Duration of breast feeding after early initiation and frequent feeding. Lancet, 25, 1141-1143
- Shereshfsky, P. M., & Yarrow, L. J. (1974). Psychological aspects of first pregnancy and early postnatal adaption. New York : Raven Press.
- Smith, M. P. (1989). Postnatal concerns of mothers. Journal of Nurse Midwifery, 34(3), 182-188.
- Swanson, J. (1978). Nursing intervention to facilitate maternal-infant attachment. JOGNN, 7(2), 35-38.
- Tulkin, S. R. & Cohler, B. J. (1973) Child rearing attitude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Merill-Parmer Quarterly, 19, 163-181
- Tulmen, L., & Fawcett, J. (1988). Return of functional ability after childbirth. Nursing Research, 37(2), 77-81.
- Turton, P. (1980). Sleep and comfort during pregnancy and after birth, Nursing, 863-865, Oxford, Medical Education Ltd.
- Waldenstrom, U., & Swanson, A. (1991). Rooming-in at night in the postpartum ward. Midwifery, 7, 82-89
- Walker, L. O., Crain, H. and Tompson, E. (1986a). Maternal role attach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 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35(2), 68-71.
- Walker, L. O., Crain, H. and Tompson, E. (1986b). Mothering behavior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Nursing Research, 35(6), 352-355.
- Watter, N. E., & Kristiansen, C. M. (1995). Two evaluations of combined mother-infant versus separate postnatal nursing car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8, 17-26.
- Wilkerson, N. N., & Barrows, T. L. (1988). Synchronizing care with mother-baby rhythms. M. C. N. 13, 264-269.
- Zunich, M. (1971). Lower class mother's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Psychological Reports, 29, 1051-1058

- Abstract -

Key concept : Rooming-in, Maternal attitude,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The Effect of Rooming-in on Maternal Attitude and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among Primiparas

Kim, Eun Sook RN, MS
& Park, Young Sook** RN, CNM,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maternal attitude and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of primiparas of rooming-in and not rooming-in.

The subjects were 128 primiparas who had delivered at eight general hospital in Seoul. 67 primiparas were in three rooming-in facilities and 61 primiparas were in five not rooming-in facil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primiparas using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 and Pharis' Self Confidence Scale at postpartal 1 or 2 wee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mean of maternal attitude was 100.32 and the range was from 82 to 138. The score of primiparas in rooming-in(100.94) was higher than those of not rooming-in(97.4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ternal attitudes between rooming-in group and not rooming-in group($P=.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ternal attitude according to age and infant sex. But types of feeding were related to maternal attitude ($P=.017$).
2. The mean of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was 119.55 and the range was from 58 to 173. The mean of primiparas in rooming-in(123.10) was higher than those of not rooming-in (115.8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between rooming-in group and not rooming-in group ($P=.040$). No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according to age, infant sex, and types of feeding.
3. The rate of breast feeding was 64.2% in rooming-in group and 34.4% in not rooming-in group at postpartal 1 or 2 week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reast feeding between the two groups($P=.004$).

In conclusion, rooming-in facilities provided primiparas with more positive maternal attitude and greater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and increased the rate of breast feeding.

* Samsung Medical Center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